

경산 코발트광산 4·3희생자 유해 첫 확인

한국전쟁 때 군경에 학살된 민간인 3500여명 암매장터
최근 신원 확인된 4·3 행불인 2명 코발트광산서 희생
타 지역 발굴 4·3 희생자 426명 중 154명만 신원 확인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경상북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처음으로 4·3희생자 유해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행방불명된 4·3희생자 7명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7명 중 2명은 제주공항에서, 5명은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등 도외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이다. 이들의 유해는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굴됐지만 그동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4·3희생자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당시 25세)씨를 비롯해 제주읍 도련리 출신 양달호(당시 26세)씨, 제주읍 연동리 출신 강두남(당시 25세)씨, 애월면 소길리 출신 임태훈(당시 20세)씨, 서귀면 동흥리 출신 송두선(당시 29세)씨, 제주읍 오라리 출신 송태우(당시 17세), 한림면 상명리 출신 강인경(당시 46세)씨다. 4·3 당시 제주에는 형무소가 없어 수형인들은 전국 15개 형무소에 분산 이감됐다.

김사림씨와 양달호씨, 강두남씨는 4·3당시 군경에 붙잡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됐으며 6·25전쟁 발발 직후 모두 대전 골령골에서 집단 학살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골령골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린다.

임태훈씨와 송두선씨는 경산 코

발트광산 집단 학살 희생자다. 임씨는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돼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된 뒤 행방불명됐으며 이후 그의 유해는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됐다. 송씨는 1949년 경찰에 연행된 후 대구형무소로 수감됐다가 연락이 끊긴 뒤 임씨와 마찬가지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산 코발트광산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대구·부산형무소 수감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

인 3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돼 암매장 된 곳이다. 군경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재소자들을 광산 수직 경도 입구에 일렬로 세워 놓고 총살했다.

그동안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4·3수형인 200여명이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돼 이들 상당수가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집단 학살 됐을 것이란 추측만 있어왔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다.

나머지 희생자인 송태우씨와 강인경씨는 1948년과 1950년 토벌대와 경찰에 각각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으며 이들의 유해는 제주공항에서 발굴됐다.

이들의 신원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채혈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김사림·임태훈씨는 조카의 채혈로, 강두남·강인경·양달호·송두선·송태우씨는 손자와 외손자의 채혈로 신원을 되찾아 70여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 보고회를 제주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연다

지금까지 제주와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 추정 유해는 426구로 이중 154명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 가족 단위 채혈이 절실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3500여명이 학살돼 암매장된 경상북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진행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

제주도 제공

제주도선관위, 6·3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 도지사·도교육감 5억3284만원

지역구 도의원 평균 5132만원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 비용으로 5억3284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8회 5억2091만원보다 1192만원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도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적었다.

이와함께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원,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5132만원으로 지난 제8회보다 197만원, 117만원 올랐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일도2동, 이도2동갑, 삼양·봉개, 노형동갑·을, 외도동·이호·도두동, 조천읍, 대천·중문·예래동 등 528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선거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위영석기자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업복귀 기회 확대 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학기제→연간 6회 기수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체계를 '기수제'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파견 교사 복귀를 골자로 한 재편 계획 이후 제기된 대안교육 축소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대안교육 접근성을 오히려 확대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올해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의 운영 방식이 기존 학기제에서 4주 단위 기수제로 전환되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학기제 운영이 정시 모집과 장기 위탁 중심으로 되면서 단기간 회복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기제 위탁교육의 경우 위

탁 기간 중에도 원격교의 지필·수행평가에 참여해야 해 성적 산출 과정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반복됐고, 장기 위탁이 내신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해 고입 전형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원격교 복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수제로 전환할 경우 도교육청은 연간 운영 기수를 늘려 수시 입교가 가능해지고, 위기 학생 발생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꿈샘학교의 경우 연간 수용 인원은 기존 40명에서 72명으로 확대되며, 입교 기회도 기존 정시 2회·수시 2회에서 정시 6회로 늘어난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에 문 연 '창고형 약국' 기대 vs 우려 교차... 4면 / '나홀로' 장년층 10명 중 1명 고립 위기... 5면

섬

새미그룹을 검색해보세요

기파?

코팅필름을?

장수필름 가격에!

무적이 오래 가는

코팅스트롱

구매 문의 | 1877-1447



- 오래가는 무적성능!
- 6중 구조, 뛰어난 내구성!
- 0.15, 0.10, 0.06mm

제주 농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코팅스트롱 대리점 방문 상담시

보수 테이프 2개 증정!

행사기간: 2월 1일 - 2월 28일

행사장소: 새원화점(새미대리점)

본 국문 지점 가격에 한해 지급